

농구부 플레이오프 진출, 첫 경기 건국대와 격돌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우리학교 농구부가 '2024 KUSF 대학농구 U-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플레이오프는 12개 팀 중 상위 8개 대학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려낸다.

우리학교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대학농구 U-리그에서 8승 6패를 기록해 6위에 올랐다. 특히 리그 중반의 5연승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큰 도움이 됐다.

우리학교 농구부의 강점과 약점은 명확하다. 강점은 수비, 약점은 공격이다. 최소 실점 3위다. 작년에 3위였던 경기당 실점을 올해는 4.2점 더 줄였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팀의 강점인 수비력에 “공격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실점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고, 동계 훈련 때 수비에 집중했다. 수비에 대한 선수들의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좋은 수비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약점인 공격 기록을 보면 팀 득점이 전체 7위다. 작년보다는 경기당 1점을 더 넣었지만 높은 수치라고 볼 순 없다. 김 감독은 “올해 우리 공격이 바뀐 부분이 있다. 프로 리그에서 유행하는 현대 농구식 공격 전술을 입히는 과도기에 있다”며 “김수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부상으로 골 밑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에 따라 외곽 슛 빈도도 떨어졌다. 그래도 우리가 하던 것을 버릴 수는 없고 스페이싱에 더해 움직이는 공격 전술까지 적절히 섞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 상대는 건



우리학교 농구부(흰 유니폼)는 지난 30일 건국대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59-66으로 패했다.

(사진=농구부 제공)

국대다. 건국대에는 정규리그 득점 2위, 콩고 국적의 프레디가 골밑을 지키고 있다. 부상으로 결장했던 4학년 가드 조환희의 출전 여부 역시 중요하다. 큰 체격의 프레디를 막기 위해 우리학교 장신 포워드 김수오 선수의 부상 공백을 다른 선수가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하다.

직전 경기에서 아쉬웠던 슛 성공률 역시 높일 필요가 있다. 농구부가 ‘가을 농구’ 무대에서 높은 곳까지 가기 위한 첫 관문이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 바로 직전 상대가 건국대였고 59-66으로 패

했다. 운명의 장난처럼 건국대와 같은 경기장에서 연속으로 맞붙는다. 김 감독은 “직전 건국대전은 크게 진 경기가 아니었다. 쉽게 물러서지 않는, 우리다운 농구를 보여주 주고 싶다. 원정경기인 게 아쉽지만, 경기장에 찾아와 응원해준다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레이오프 목표로 김 감독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습 때 했던 걸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며 “지면 바로 탈락하는 경기지만 너무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 농구부는 올해 이례적으로 4학년 없는 시즌을 보냈다.

주장을 맡은 3학년 이상현(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는 “내가 먼저 열심히 해야 동료들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선수는 선수단 분위기에 “최근 연패로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지면서 배우는 것도 많았다. 긍정적이게 생각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선수는 “건국대는 우리가 정규리그에서 졌던 팀이다. 준비를 잘해 복수하고 싶고 꼭 결승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 예술축전 5년 만에 개최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서울】 2019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던 후마 예술 축전이 5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오늘 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후마니타스 예술축전이 개최된다. 야외 공연, 크라운 공연, 시음악 공연, 미디어아트, 네오관 댄스공연으로 구성됐다.

이번 후마 축전은 교양과목 중 예술교과 영역 강의의 학생과 교수가 주축이 돼 공연과 작품을 전시한다. 예제는 계열 전공자가 아닌 학생에게도 예술에 대한 감수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총 6차례 열린다. 10월에 2번, 11월에 4번이다. 오는 8일에 <청춘의 하모니: 선율은 바람을 타고>가 개최된다. 이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MDOP와 음대 학생회가 협업한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이다. 이후 31일에 <무대 위의 후마 세상: 소리로 소통을 잇다> 공연이 개최된다.

다음 달 7일에는 <시음악 '황무지'>를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11일부터 15일까지는 <미디어아트: 예술이 흐르는 저녁> 전시가, 25일부터 29일까지는 <청운관, 소통과 공감의 미술로 거듭나다> 행사가 열린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정원내 신(편)입학 모집

- 온라인 원서접수 · 서류제출 : 2024.10.14(월) 10:00~ 21(월) 17:00까지
- 전형일 : 2024.11.23(토)
- 합격자 발표 : 2024.12.6(금) 15:00
- 합격자 등록 : 2025.1.8(수) 10:00~ 10(금) 16:00 까지

※입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공지사항 참고

※문의: 입학처(1544-2828)